

유필스, 중국 LCD 도광판 공장 건설

500만달러 투자 3개 생산라인 구축 ... BOE-OT에 생산량의 80% 공급

LCD 부품 생산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.

LCD 부품 생산기업인 유필스는 중국 비오이(BOE) 테크놀로지 그룹의 5세대 LCD 생산라인 도입에 따라 6월20일 TFT-LCD 도광판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중국공장 착공에 들어갔다고 7월1일 발표했다.

유필스가 현재 건설중인 중국현지법인 세화보력특광전과기 베이징 유한공사 공장은 2005년 9월 준공한 뒤 10월초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.

중국공장은 중국 최대의 LCD 패널 제조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BOE-OT에 백라이트유닛(BLU)의 핵심 소재인 도광판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 BOE-OT 생산량의 80% 이상을 공급하게 된다.

유필스는 2005년 10월 중국공장 양산 이전까지는 BOE-OT 공급량을 국내 자회사를 통해 충당할 예정이어서 약 4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.

유필스는 현지법인에 총 500만달러를 투자함으로써 3개의 TFT-LCD 도광판 생산라인과 가공설비, 측정 시험기와 부대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.

BOE-OT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LCD 사업부를 인수해 설립한 자회사 비오이 하이디스의 기술이전에 힘입어 총 12억달러에 달하는 생산설비를 확보하고 5월부터 5세대 양산에 들어갔다.

현재 베이징 경제기술개발지구 내 BOE-OT의 LCD 생산단지에는 유필스를 비롯해 6월24일 양산을 시작한 나노하이텍, 동진썬미캠, 온누리전자 등 다수의 국내 협력기업들이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이어서 LCD 관련 부품 및 장비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7/06>